

The Heart of Worship (And Everything Else We Do):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February 1, 2024

Aloha MPC ‘Ohana,

As you know, Inspiring Worship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one of our core, identified ministry priorities here at MPC as we seek to be the best neighborhood church that we can be, to the glory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elp us take the next step forward in worship, God has graciously brought us a new Worship Music Leader, Peter Meyer, and I’m excited for this coming Sunday, which will be Peter’s first with us as a leader.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Christian worship latel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And as a part of that, I recently found myself recalling the chorus to a very well-known and (globally) widely-sung praise song entitled, “The Heart of Worship.” The song was written 25 years ago, back in 1999, and it’s been sung in millions of churches, at presbytery meetings, and even General Assemblies. The chorus says thi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cuz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Here’s the story behind those lyrics. They were written by a man named Matt Redman. At the time, Matt Redman was the Praise Team Leader at an Anglican church in England called Soul Survivor Church. Soul Survivor Church was as contemporary and as cutting edge as any church anywhere, and every week’s worship service was on the level of a concert at the Blaisdell Center. And the church itself was literally bursting at the seams with young people. (It was not your typical parish of the Church of England, in other words.)

The pastor at the time was a man named Mike Pilavachi (who’s spoken at more than a few HIM conferences, including 2023’s). Notwithstanding outward “success,” Rev. Pilavachi realized that there was a problem. Yes, the church was full to overflowing and growing rapidly. But, he realized, they’d lost their focus. They had become so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their worship services that, he worried, they seemed to be forgetting that Christian worship is always all about Jesus Christ. Because Jesus is “the heart of worship.”

So Rev. Pilavachi made a radical decision (one that not everyone was happy with, of course). He said, “For at least the next six months we will have no music whatsoever of any kind during our weekly worship services. None. We will instead focus entirely on Jesus Christ through the study of scripture, prayer, serving others, etc. And we will continue in that vein until we all get it again – until we are all crystal clear that what we’re here to do at Soul Survivor Church is all about Jesus.”

So that's what Soul Survivor Church did for six long months. Until they all got it. And then and only then did music return to their worship services.

It was while preparing for their first musical service of worship in more than six months that Matt Redman was inspired to write the song, "The Heart of Worship."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cuz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One could quibble with the grammar or the choice of words (I suppose), but what those lyrics say is quite Biblical, quite Reformed, and just plain true – no matter what particular church or parish or denomination or style of worship one may be talking about. If it's *Christian* worship, then Jesus is the heart of it, and it's all about him.

The same likewise holds true for pretty much everything else about "church" too. Christian education and Children's Church, for example, are about more than just getting as many kids as possible to come to church; these things are all about Jesus. Fellowship times are about more than talking story or tasty treats; Christian fellowship is all about Jesus. Evangelism isn't about attracting more members to one's church; it too is all about Jesus. Church committees are not just about meetings, agendas, motions, programs, and projects; church committees are all about Jesus. Stephen Ministry, the Board of Deacons, and the Session too – these things as well are all about Jesus. Because Jesus is the heart of it all, right?

Me ke aloha,
Pastor Ron

예배의 핵심(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아시다시피 영감을 주는 예배는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여기 MPC에서 확인된 핵심 사역 우선순위 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음악 리더인 피터 메이어(Peter Meyer)를 보내 주셨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리더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첫 번째 일요일이 될 이번 일요일이 기대됩니다.

나는 최근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예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최근 저는 아주 잘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는 찬양곡인 “The Heart of Worship”의 합창을 떠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25년 전인 1999년에 작성되었으며 수백만 개의 교회, 노회 모임, 심지어 총회에서도 불려졌습니다. 합창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죄송해요, 주님. 제가 만든 일 때문에 이 일이 다 당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가사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글은 Matt Redman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당시 Matt Redman은 Soul Survivor Church라는 영국 성공회 교회의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Soul Survivor Church는 어느 교회보다 현대적이고 최첨단이었으며, 매주 예배는 Blaisdell Center에서 열리는 콘서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는 말 그대로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즉, 영국 교회의 전형적인 본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사는 Mike Pilavachi라는 사람이었습니다(2023년을 포함하여 여러 HIM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Pilavachi 목사는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넘쳐흐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초점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제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기독교 예배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ilavachi 목사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주간 예배 시간에 어떤 종류의 음악도 연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음.

그 대신에 우리는 성경 공부, 기도,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등을 통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시 얻을 때까지 –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백해질 때까지 그 맥락을 계속할 것입니다. Soul Survivor Church는 예수님에 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Soul Survivor Church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예배에 음악이 돌아왔습니다.

Matt Redman이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노래를 작곡하도록 영감을 받은 것은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이었습니다.

_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만든 일 때문에 그것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_

문법이나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내 생각에는) 그 가사가 말하는 내용은 상당히 성경적이며, 상당히 개혁적이며, 명백히 사실입니다. 특정 교회나 교구, 종파, 예배 스타일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에 대한.

그것이 _기독교_ 예배라면,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시며, 그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거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육과 어린이 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친목 시간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는 더 많은 회원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위원회는 단순히 모임, 안건, 동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위원회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스데반 사역, 집사위원회, 당회도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 알로하,

론 목사